

서울 근교 농촌주택에 있어서 식사 및 취사공간에 관한 사례 연구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삼가 3 리 마을을 중심으로—

A Casestudy on the Eating and the Cooking Spaces of Farmhouse in Suburban Area

延世大學校 家政大學 住生活學科

副 教 授 尹 貞 淑

研究助教 崔 秉 淑

Dept. of Housing and Interior Design, College of Home Economics, Yonsei Univ.

Associate Professor; **Chung Sook Yoon**

Research Assistant; **Byoung Sook Choi**

< 목 차 >

I. 서 론

II. 조사 방법

III. 조사 결과 및 분석

IV. 해석 및 논의

V. 요약 및 제언

참고문헌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wellers' housing needs through the connection between dwellers' living pattern and space usage.

The objectives were (1) to examine how to eat and cook in the eating and cooking spaces, (2) to examine how to alter the original housing, (3) to research the dwellers' housing needs for the eating and cooking spaces, and the changing process of dwellers' housing needs, and (4) to classify the type of eating and cooking space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1) there were changed in eating pattern of space usage according to the season. The eating activities were a Korean living pattern: sitting on the floor and eating at the BAB SANG. (2)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pattern of space usage and the activity for main cooking and KIM CHI. (3) AN BANG (eating space for winter) as well as MARU (eating space for summer) has changed to a larger space. (4) By the changing of living patterns, BU AUK (a main cooking space) has showed a various alternations: function, dimensions of space, facilities, floor materials and floor level. (5) The dwellers' housing needs for eating space were a multipurpose room, and a dining

kitchen of western living pattern (using a dining table and chairs) with the present changing life styles. (6) The dwellers' housing needs for cooking space were a multipurpose room of working area, a separation of heating area, a western living pattern, a plan of flat floor level and a dining kitchen. (7) BU AUK of eating and cooking spaces was classified into 4 types: a traditional type, a mixing type, a modernized type, and a western type.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한국의 농촌사회는 해방이후 현재까지 크게 변동을 겪어왔으며, 1960년대 이후 국가의 경제개발 정책에 의해 근대적 산업사회로 향한 획기적인 변화를 이루었다. 산업사회로의 이행(移行)에 따른 도시로의 인구집중은 도시의 성장·팽창 등 도시사회 변화뿐만 아니라 도시 농촌간의 사회경제적인 격차를 초래하게 되어 도시적 문물의 제요소가 농촌에 침투하므로써 농촌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강영환, 1987). 또한 1970년대의 농촌근대화 물결을 타고 시작된 농촌 새마을운동의 여파는 정부의 강력한 뒷받침아래 농로확장, 환경가꾸기, 지붕개량 등을 시초로 하여 주택개량, 취락구조 개선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농촌생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고, 농촌주민의 생활양식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주거공간은 사회 문화적 영향에 따라 결정되어진다는 관계에서 볼때, 오늘날 농촌사회의 변화는 농촌주택의 주생활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어진다. 그러므로 변화하는 농촌사회의 생활에 적합한 농촌주택의 계획이 요구되어진다.

이러한 배경에서 도시화·근대화에 따른 변화의 양상을 많이 나타내고 있는 도시근교의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촌 거주자들의 생활적 특성에 적합한 농촌주택의 계획을 위한 기초적 연구로써, 현재 농촌의 생활을 관찰, 분석하여 농촌 거주자들에 대한 주생활과 주거공간의 사용방식을 조사하고자 한다. 특히 도시화의 영향으로 생활도구와 설비변화에 따른 생활의 형태적 변화 그리고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개량이 활발하여 변화가 많은 부엌공간을 중심으로한 식

사 및 취사공간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주생활과 주거공간과의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생활과 공간의 사용방식을 통한 거주자의 주거요구를 생활적, 물질적 측면에서 파악하여, 농촌주택에서의 식사 및 취사공간에 대한 계획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목적으로는 농촌 주택에 있어서,

(1) 거주자들의 식사 및 취사공간에 대한 생활적 특성을 파악한다.

(2) 거주자들의 식사 및 취사공간에 대한 물질적 측면을 파악한다.

(3) (1) (2)로부터 식사 및 취사공간에 대한 거주자의 생활적 요구형태를 파악하고, 그 변화과정을 밝혀낸다.

(4) (3) 으로부터 식사 및 취사공간을 유형화한다.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1) 서울 근교 농촌지역은 본 연구의 선정조건에 타당한 지역으로 제한한다.

(2) 농촌의 주생활과 주거공간은 식사 및 취사공간을 중심으로 그 범위를 제한한다.

(3) 농촌주택에서의 생활행위는 일상적인 생활행위로 그 범위를 제한하며 그 행위는 도시 주택에서의 생활행위와 달리 마당을 중심으로 하는 농작업의 행위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도시 근교지역이기 때문에 비농가주택이 있으므로 농작업의 행위는 일

상적인 생활 행위에서 제외한다.

(4) 조사 지역에서는 농촌의 생활이 농한기 농번기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고 여름 겨울철에 따라서 그 차이가 뚜렷한 것이 사전조사 밝혀진 사실이므로 본 조사에서는 생활의 변화는 계절적인 측면에서 파악한다.

II. 조사 방법

본 장에서는 연구를 계획 진행하여온 연구의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연구방법의 개요, 조사지역의 선정 및 시기, 조사목적 및 내용, 조사 방법 및 자료분석에 대해 살핀다.

1. 연구방법의 개요

단순하고 통일적인 철학적 배경을 지닌 지금까지의 기존설문지나 면접에 의한 간접적이고 계량적 기법에 의존하여 온 수량적 접근법을 보완하기 위한 질적접근법(김경동, 이은숙, 1986)의 대표적인 연구방법으로 현지 연구법이 있다. 이는 인간의 삶에 대한 기원과 흐름 및 현재의 삶에 대한 기술(記述)을 중시하는 인류학, 역사학, 지리학의 분야에서 이용되어 왔다(한상복외, 1986).

“현지의 자료에 가까이”(한상복외, 1986)가서 경험적 實在세계에 대한 직접적 지식을 몸소 얻는 실질적이고 경험적인 현지연구는 여러학문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생활의 응용학문인 가정학의 주생활 분야에 있어서도 질적접근법인 현지연구법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주택이라는 물리적 구조체의 공간과 함께 거주자의 생활을 대응시켜 공부하는 주생활의 분야에서는 거주자의 생활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지 연구법에 의한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거주자의 생활에 대응하는 농촌주택의 거주공간계획의 기초적 연구로써, 본 연구는 현재 농촌의 실재적인 삶의 상황에 근거를 두고 공간과 생활과의 대응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2. 조사지역의 선정 및 조사시기

(1) 조사지역의 선정

변화하는 농촌지역의 주택이 미래의 농촌주택을 보다 잘 예측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변화하는 농촌지역에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조사 연구하였으며, 이에 대한 선정기준은

- (1) 도시의 영향을 쉽게 받고있는 근교지역일 것.
- (2) 도시화의 영향^{*1)}을 나타내고 있는 지역일 것.
- (3) 도시화의 영향에 따라 변화가 다양한 지역일 것.
- (4) 도시화의 영향에 따른 생활의 형태적 변화모습^{*2)}을 파악할 수 있는 지역일 것.
- (5) 한 지역에서 도시적 생활모습^{*3)}과 전통 농촌의 생활모습이 혼재하여 변화하는 과정을 볼 수 있는 지역일 것.

이러한 선정기준에 따라 변화하는 농촌지역으로 적합한 서울 근교의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삼가 3리 윗마을을 조사지역으로 선정하고, 윗마을을 구성하고 있는 쏜주택 13채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 13채 주택에 대한 주거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2) 조사시기

① 답사시기 : 1987년 7월 20일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조사지역을 선정하기 위하여 용인의 전통 마을인 문시령을 비롯하여 삼가 1리, 2리 3리 마을을 현지답사하였다.

② 1차 조사시기 : 1987년 8월 19일~1987년 8월 22일.

③ 2차 조사시기 : 1988년 1월 27일~1988년 1월 28일

1차 조사의 미비한 자료에 대해 보완조사를 하였

- * 1. 도시화의 영향은 여러 요인으로 나타나겠지만, 직업의 전환, 부업의 개량, 생활용품의 변화로 파악한다.
- * 2. 형태학적 변화모습이란 도시의 영향으로 농촌사회를 파악할 수 있는 요인으로 전기생활용품, 부업설비, 가스레인지의 도입이다.
- * 3. 도시적 생활모습은 형태적 변화모습 뿐 아니라 입식생활가구의 도입으로 파악한다.

〈표 1〉 조사주택에 대한 주거의 일반적 특성

주택의 번호	주택의 구조	안채의 규모(평)	직업	세대주 연령(세)	가족 구성도
I-1	목 구조	23.21	농업	50	
I-2	시멘트블럭조	16	회사원	55	
I-3	"	16.49	농업	57	
I-4	목 구조	18.79	축산업	42	
I-5	시멘트블럭조	13.56	농업	59	
I-6	"	8.41	회사원	39	
I-7	목 구조	7.93	무직	59	
I-8	"	16.59	농업·상업	74	
I-9	"	15.61	회사원	30	
I-10	시멘트블럭조	10.67	"	30	
I-11	목 구조	13.24	축농·업업	34	
I-12	"	13.63	농업	55	
I-13	"	16.57	"	51	

□ : 비동거인 ● : 남 ▲ : 여
●▲ : 1대 ●▲ : 2대 ○△ : 3대

고, 1차 조사시 수리중으로 누락된 1채의 주택 평면을 채취하였으며, 겨울철의 생활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리고 부엌공간만의 정밀한 자료의 필요에 따라 13채 주택을 대상으로 부엌의 평면 입면을 채취하였다.

3. 조사목적 및 내용

(1) 조사마을의 일반적인 배경을 파악하기 위하여 마을 배치도를 채취하였다.

(2) 주거공간에 대한 물질적 측면의 주거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건물(안채, 부속사)의 배치도, 방배치의 평면도, 실내가구의 배치, 변경이전의 原型 평면도를 채취하고, 실내 바닥의 마감 재료를 조사하였다.

(3) 식사 및 취사공간의 중심인 부엌에 대한 주거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부엌 바닥의 높 낮이, 가구 및 시설, 설비의 배치에 따른 평면 입면을 채취하고,

바닥, 벽, 천정의 마감재료를 조사하였다.

(4) 조사 마을의 주택 및 거주자에 대한 일반적 배경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거의 일반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5) 생활과 공간의 대응관계에서 주거공간의 지배적인 요소인 거주자의 생활 행위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주거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공간사용에 대해 조사하였다.

4. 조사방법 및 자료분석

(1) 조사 방법

본 연구의 조사에서는 자료수집을 위하여 심층관찰과 면접의 기법을 사용하였고, 보조수단으로 사진촬영, 실측, 스케치기법 및 녹음방법을 활용하였으며, 마을의 대표자(里長)로부터 행정기록 및 마을유래도 들었다.

(2)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조사자료를 기록 정리하는 실태조사 자료집의 작성을 먼저 수행하였고, 조사 자료집에 기초하여 주제와 관련된 분석 요인을 파악하고 설명하는 질적분석에 기초를 두고, 하나하나의 사례에 충실한 記述的인 내용 분석을 하였다.

III. 조사결과 및 분석

본 장에서는 식사 및 취사공간에 대한 거주자의 주거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생활과 공간과의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거주자의 생활행위와 공간사용방식을 생활적 특성과 물질적 측면에서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주거요구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첫째, 생활적 특성에 의한 공간사용의 측면으로는 일상적 행위패턴**⁴⁾, 기거양식, 계절을 분석 기준으로 하였으며, 둘째, 물질적 측면에 의한 공간구성의 측면으로는 변경내용 순위, 변경시기를 분석기준으로 하였다.

* 4. 일상적 행위패턴은 연구자가 농촌생활을 직접 관찰하여 분류한 7가지 행위로 취침 및 개인생활, 식사, 휴식, 단란, 접객, 취사, 가사작업, 위생행위이다

1. 식사 및 취사공간의 생활적 특성

(1) 농촌 거주공간에서 행위와 공간과의 관계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방은 주거공간에서 행해지고 있는 7가지 행위패턴이 4계절에 걸쳐 일어나는 공간이며, 휴식, 단란 및 겨울철의 식사 행위를 수용하는 가족공동 행위의 공간이다. 그리고 접객이 이루어지는 주된 공간이므로 안방은 다른 공간보다 위계가 높은 공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마루의 공간도 안방과 마찬가지로 7가지 행위패턴의 여러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이나, 마루는 여름철을 위한 공간이다. 건넌방은 취사를 제외한 여러행위를 계절에 변화 없이 수용하는 공간이며 가족공동 공간의 성격을 띠고 있는 안방보다는 취침과 개인생활행위의 중심 공간이다. 부엌은 취사와 가사작업행위의 중심공간이며, 여러가지의 가사작업을 수용하지만, 이에 비해 식사를 위한 취사의 행위가 더 많이 이루어지므로, 취사행위의 중심공간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식사 및 취사행위와 공간사용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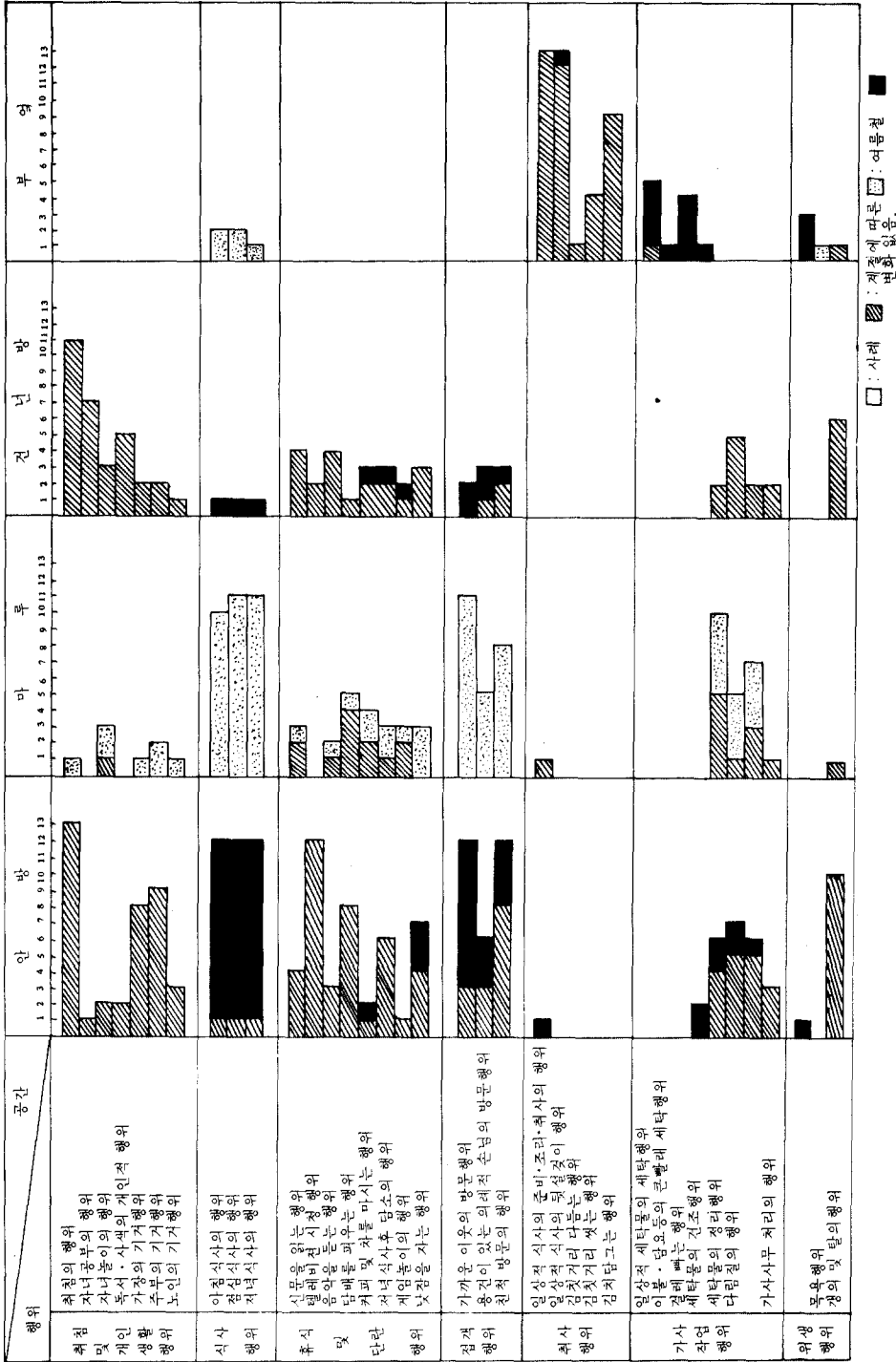
① 일상적 식사행위에 따른 공간의 분석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식사행위는 겨울철에는 안방, 여름철에는 마루가 대표적인 식사공간으로, 계절에 따라 공간사용이 뚜렷이 달라지고 있다. 여름철에는 마루가 식사의 주요공간이며, 그 외에도 부엌, 안방, 아래방까지도 사용되고 있다. 반면에 겨울철에는 안방이 식사의 주요공간이며, 아랫방, 건넌방도 식사의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여름철의 식사공간인 마루는 전혀 식사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식행위가 계절에 따른 기후 차이로 난방필요여부에 따라, 여름철에는 개방된 공간에서 식사가 이루어지고, 겨울철에는 난방을 할 수 있는 실내의 방에서만 식사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한편 여름철의 저녁식사 경우에 식사의 공간은 아침, 점심의 식사와 다르게 안방에서 이루어지는 사례가 보여지는데(2 사례), 이것은 저녁식사 때 편안한 마음으로 텔레비전을 시청하면서 식사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거주자는 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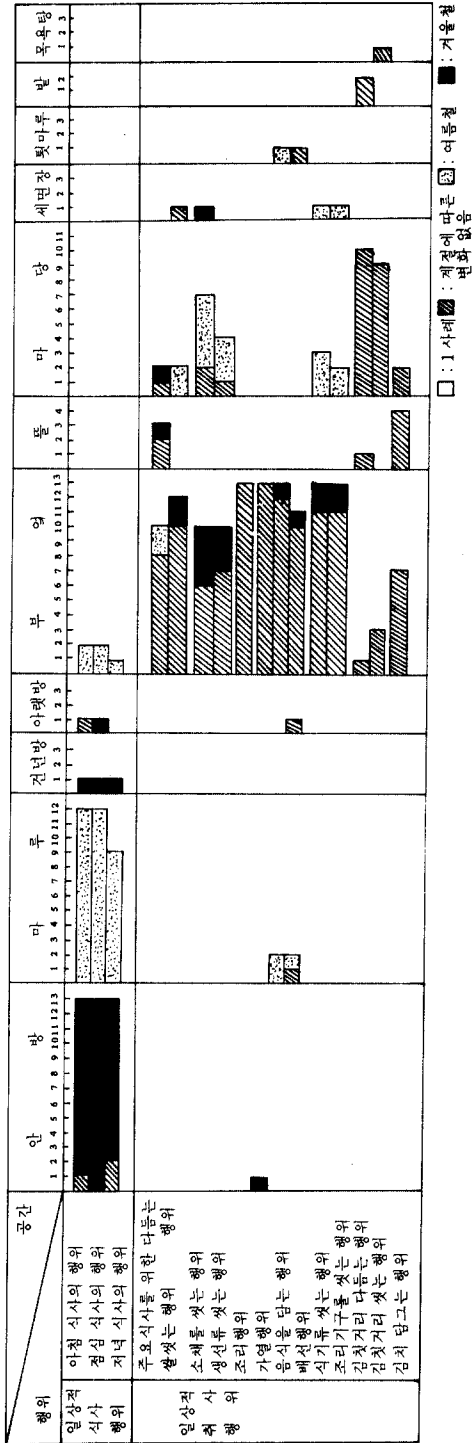
② 일상적인 취사행위에 따른 공간의 분석

일상적인 취사행위는 크게 주요식사를 위한 행위



(그림 1) 조사주택에서의 행위와 공간사용 (사례수=13)

(그림 2) 식사 및 취사생활 행위와 공간사용 (사례 수 = 13)



주요식사를 위한 취사행위 — 조리 · 취사 행위 — [다듬기 : 소채다듬기, 씻기 : 쌀, 소채, 생선씻기, 조리 : 양념하기, 썰기, 가열 : 끓이기, 튀기, 튀기기, 배선 : 음식을 그릇에 담기, 상차리기]

김치를 담그는 행위 — 김치거리 다듬기, 김치거리 씻기, 김치담그기

〈표 2〉 식사를 위한 취사행위의 내용 분류

와 김치를 담그는 행위로 구분되어지며, 그 내용은 (표 2)과 같다.

식사를 위한 취사행위는 (그림 2)에서 보듯이 부엌을 중심으로 마당, 세면장, 뜰, 마루에서 이루어지는데, 여름철에는 마당, 마루까지 취사행위의 공간영역이 넓어지고, 겨울철에는 기후의 영향으로 비교적 부엌의 공간으로 취사공간의 영역이 축소되고 있다. 그러나 취사의 중심행위인 조리, 가열행위만은 여름, 겨울의 계절에 따른 공간사용의 변화없이 부엌에서 이루어진다.

한편 김치를 담그는 행위에서는 다듬고 씻는 행위는 마당이 중심공간이며, 담그는 행위는 부엌이 그 중심공간이다. 그 외에도 김치를 담그는 행위는 밭, 뜰, 목욕탕에서도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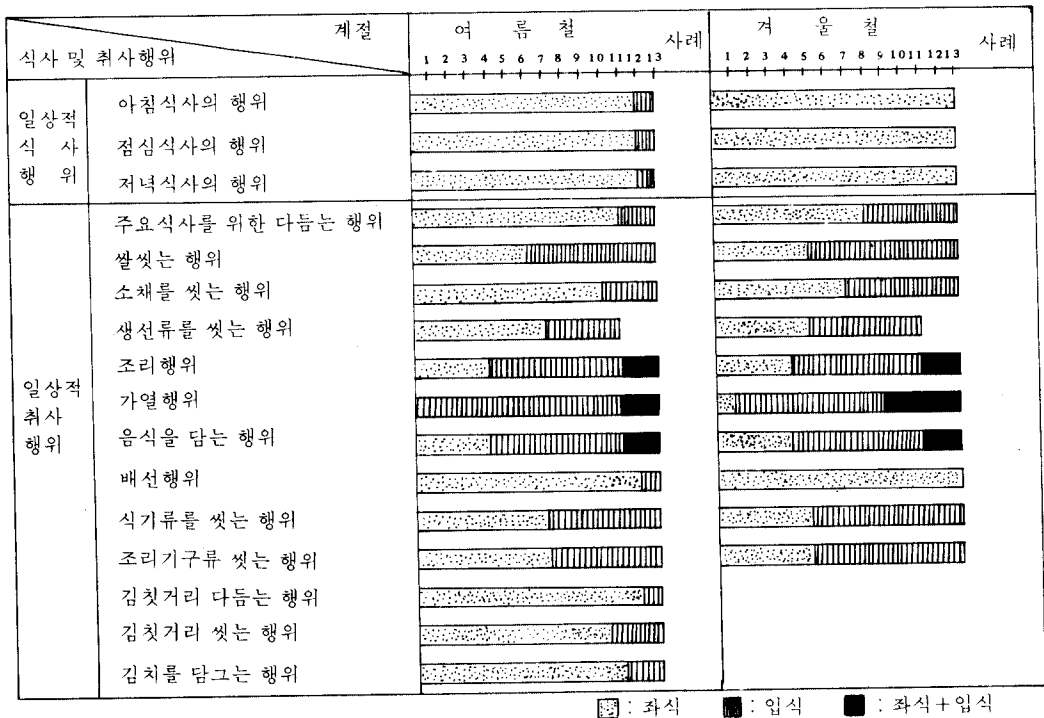
이와 같이 일상적인 취사행위는 부엌공간을 중심으로 실외의 마당, 뜰의 공간까지 그 행위가 일어난고 있다.

(3) 식사 및 취사 생활행위의 기거양식

① 일상적 식사행위의 방식

(그림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여름, 겨울철 모두 식사행위의 방식은 밥상을 이용하는 좌식형으로, 식사행위의 방식은 계절에 따라 거의 변화가 없다. 그러나 한 사례이긴 하지만, 계절에 따라 식사행위의 방식이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재래의 부엌을 부엌겸 식당형(DK형)으로 변경하여, 식탁, 의자를 도입한 것이다. 그런데 부엌의 바닥은 겨울철에 난방이 되지 않으므로 식사공간의 사용이 안방으로 옮겨지고, 식사행위의 방식도 밥상을 이용하는 좌식형으로 바뀐다.

이와 같이 조사지역에서의 식사방식은 밥상을 이용한 좌식형의 자세이지만, 도시주택에서의 식사공간에 대한 분리경향에 따라 부엌겸 식당형(DK형)의 식사공간과 식탁, 의자를 사용하는 입식형의 식사행위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 보여지고 있다.



(그림 3) 식사 및 취사생활 행위의 기거양식

② 일상적인 취사행위의 방식

주요식사를 위한 행위와 방식을 살펴보면, [그림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다듬고 씻는 행위는 여름, 겨울철에 따라 조금씩 행위의 방식이 변화하고 있는데, 겨울철에는 쪄그리고 앉아서 작업을 하는 전통적인 재래의 좌식형 자세가 줄어들고, 입식가구형 작업대나 개량형의 개수통에서 서서 작업하는 입식형의 자세가 많아지고 있다. 이는 공간사용과 관련지어 볼 때, 여름철에는 기후적인 이유로 개방된 마당공간까지 취사행위의 공간영역이 확대되기 때문이고, 마당에는 취사행위를 보조하기 위한 설비 가구가 없으므로, 전통적이고 습관적으로 고수해 오던 재래의 좌식형 자세를 취한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공간사용이 부업으로 집중되고, 부업에는 취사행위를 위한 설비, 가구가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는 자세가 나타나게 되고, 따라서 행위방식에서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조리, 음식담기 행위는 재래의 좌식형 자세, 입식형 자세, 좌식형과 입식형의 혼용자세로 작업하고, 계절에 따라서는 변하지 않으며, 다른 취사행위보다 입식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그림 3). 가열의 행위는 가스 레인지의 이용이 높으며, 난방의 연탄불을 겸하여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여름(2 사례)보다 겨울(5 사례)에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상차림의 배선행위는 식탁에 차리는 경우를 제외하면, 계절에 관계없이 모두 밥상에 차리며, 이는 식사행위의 기거양식과도 일치한다.

한편 김치를 담그는 행위에 있어서 다듬기, 씻기, 담그기의 행위는 배추, 무우등의 재료를 바닥에 두고 쪄그리고 앉아서 행하는 전통적인 재래 좌식형의 자세로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김치를 담그는 행위가 주요식사를 위한 취사행위에 비해 좌식형의 자세를 나타내는 것은, 김치를 담그는 재료의 양이 식사를 위한 재료의 양보다 많음에 따라 넓은 작업공간을 필요로 하므로 작업면이 넓은 바닥에서 행하는 재래좌식형의 자세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2. 식사 및 취사공간의 물질적 측면

(1) 조사주택에서의 공간변경 내용

① 공간에 대한 변경내용의 분류

조사지역에서 주택의 변경내용은 건축면적의 확대에 따른 공간증축, 설비변경의 공간개축, 건물의 신축 및 공간용도 변경에 따른 개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공간과 관련지어 분류하면 다음의 7가지로 분류되어진다.

가. 방의 증축, 개축 : 안방, 건넌방을 늘리거나, 행랑채에 새로 방을 들인 변경.

나. 마루의 증축 : 마루의 크기를 늘리거나, 마루 앞부분에 뒷마루를 설치한 변경.

다. 마루의 분합문 설치 : 마루의 전면에 유리문을 설치하거나 분합문을 설치한 변경.

라. 부엌개량 : 부엌의 취사, 난방설비를 개량하거나, 공간의 면적을 증축한 변경.

마. 목욕탕의 신축, 개축 : 변소를 개량하거나 신축한 경우와 목욕탕을 신축하거나 간이목욕탕을 설치한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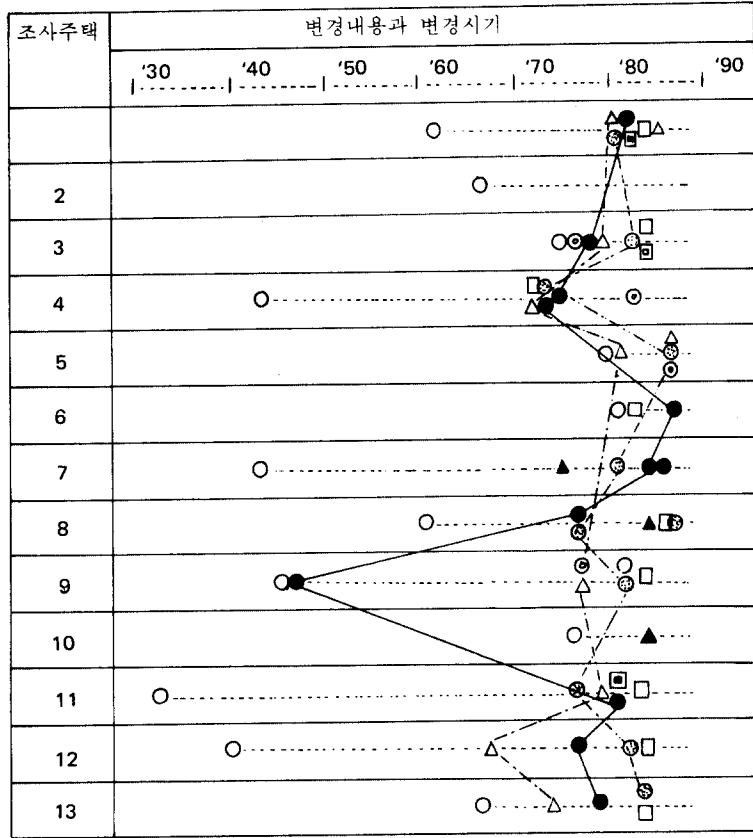
바. 부속사의 신축, 증축 : 썰광신축, 헛간신축, 김치광 신축, 행랑채의 광신축, 축사신축 및 증축으로 인한 변경.

사. 셋방의 증축, 개축 : 세를 주기 위하여 셋방을 신축하거나 기존공간을 셋방으로 개축한 변경.

② 변경을 통해 본 공간의 요구

공간별로 분류한 7가지 변경내용을 변경시기와 관련지어 변경순서를 살펴보면 [그림 4], 첫번째로 가장 먼저 변경의 요구를 나타낸 공간은 1946년 9번 주택의 안방공간의 증축이고, 두번째는 1968년 12번 주택의 부속사 신축이며, 세번째는 4번 주택의 부엌공간 개량이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목욕탕, 변소, 마루, 셋방에 대한 변경이다.

따라서 조사지역의 주택에서는 거주자의 중심인 안방과 취사를 위한 부엌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거주자의 요구를 나타내고 있는 공간임을 알 수 있으며, 농작업 수행을 위한 부속사 공간도 요구가 큼을 알 수 있다.



- : 건축시기
- : 방의 증축, 개축
- ▣ : 마루의 증축
- ◎ : 마루의 분합문 설치
- ⊗ : 부엌개량
- : 변소·목욕탕의 신축, 증축
- : 부속사의 신축, 증축
- ▲ : 셋방의 증축, 개축
- : 변경 1순위(방)
- - - : 변경 2순위(부속사)
- · · : 변경 3순위(부엌)

[그림 4] 조사주택의 변경내용과 변경시기

(2) 식사공간에 대한 변경 내용

식사공간은 계절에 따라 안방, 마루가 대표적이므로, 이 두 공간을 중심으로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공간크기의 증축이다. 이러한 안방, 마루의 공간크기에 대한 요구가 식사행위에 기인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변경사례에 한하여 공간에 놓인 물질적 요소를 파악하여 보면, 안방은 옷장, 이불장, 텔레비전이

놓여져 있고, 마루는 냉장고, 밥상, 그릇장, 전기밥솥, 그릇수납 장식장이 놓여져 있다. 따라서 안방보다는 마루의 공간이 보다 식사행위에 따른 요구로 공간을 변경하였다 하겠다. 그러나 앞서 공간과 행위와의 관계 [그림 1]에서 살펴보았듯이 마루는 여러 행위를 수용하는 공간이므로, 이에 따라 크기를 증축하였다고도 할 수 있다.

(3) 취사공간에 대한 변경 내용

① 변경 내용의 분류

조사주택에서 취사공간(이하 부엌)의 변경 내용은 부엌의 물질적 요소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내용별로 분류하면, 다음의 6가지로 분류되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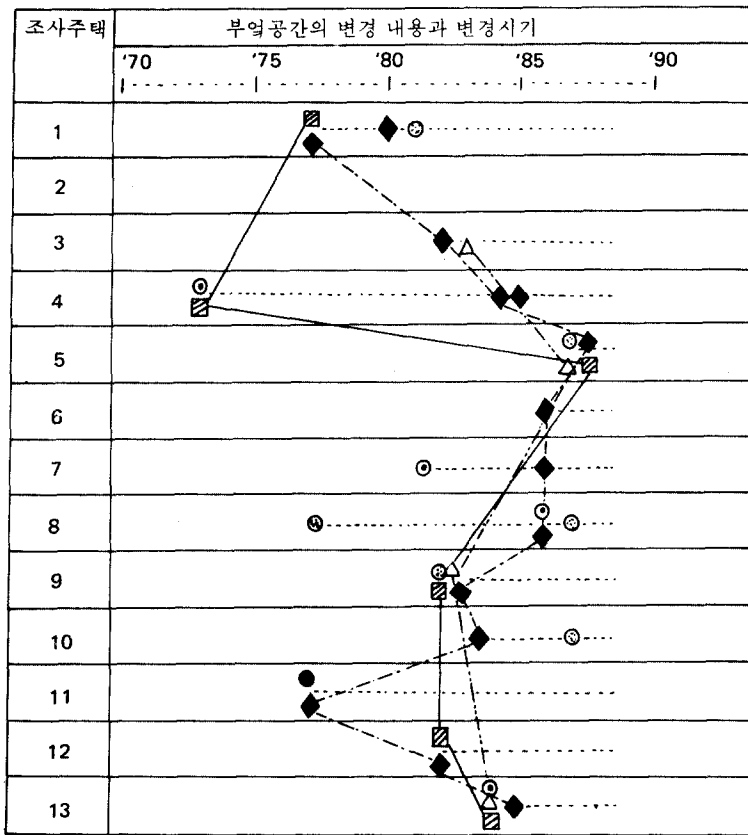
가. 용도의 변경 : 부엌에 위치한 썰판, 나뭇판을 방으로 개축한 변경.

나. 부엌의 증축 : 부엌의 공간크기를 늘린 변경.

다. 부엌내 난방방식의 변경 : 나무를 때던 아궁이, 연탄아궁이의 난방을 새마을 연탄보일러로 고친 변경.

라. 바닥 높이의 변경 : 부엌의 바닥을 높게하여 부엌에서의 바닥고저 차이를 없앤 변경 혹은 부엌 바닥을 낮추어 바닥고저 차이를 둔 변경.

마. 바닥 마감재의 변경 : 부엌 바닥의 재료를 흙의



- ⊙ : 유도변경
- : 부엌의 증축
- ⊕ : 부엌내 난방방식의 변경
- ▲ : 부엌바닥 높이의 변경
- ▨ : 부엌바닥 마감재의 변경
- ◆ : 부엌 취사설비의 변경
- : 변경 1순위 (바닥마감재)
- - - : 변경 2순위 (취사설비)
- · · : 변경 3순위 (바닥높이)

(그림 5) 부엌의 변경내용과 변경시기

상태에서 시멘트물탈타일, 비닐장판으로 바꾼 변경.

바. 부엌취사설비의 변경 : 시멘트물탈 개수통의 설치, 싱크대, 작업대의 설치, 가스레인지의 설치, 콘센트 설치의 변경.

② 변경에 따른 부엌공간의 요구

부엌의 변경은 1973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계속 나타나고 있으며, (그림 5)를 보면, 주로 1980년 이후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경이 진행되고 있다.

부엌변경의 내용을 변경시기와 관련지어, 부엌공간에 대한 요구를 살펴보면, 가장 우선적으로 바닥마감재, 설비, 바닥높이가 변경되었고, 그 다음으로 난방방식변경 및 부엌의 용도변경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거주자의 요구가 직접적이라고 생각되는 우선순위의 세번째까지의 변경내용을 중심으로 부엌공간의 변경요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취사설비의 변경은 부뚜막 → 개량입식(개수통 설치, 개량입식 작업대) → 입식(싱크대, 입식가구 작업대)의 설비로 그 요구가 바뀌고 있고 바닥 재료는 흙 → 시멘트물탈 → 타일 → 비닐장판으로, 바닥의 높이는 고저 차이가 있음 → 없음으로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IV. 해석 및 논의

본 장에서는 이상의 식사 및 취사행위와 공간사용의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농촌 거주자에 대한 주거요구의 특성을 파악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1. 식사 및 취사공간의 생활적 요구형태

식사공간에 대한 조사지역 거주자의 주거요구는 다목적 기능을 지닌 병용공간과 좌식의 기거양식이다. 그러나 생활이 변화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거주자는 입식형의 식사가구(식탁, 의자) 도입으로 식사와 취사공간이 병화된 DK형도 요구한다.

취사공간에 있어서는 입식의 설비와 가구도입으로 바닥의 고저차이는 없고, 바닥재는 비닐장판으로 바꾸는 입식화 및 현재의 부엌과는 다른 실내공간으로의 부엌평면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식사 및 취사공간에 대한 현재 생활상의 주거요구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3>와 같고, 이는 식사 및 취사공간 계획시 다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2. 주거요구 분석에 의한 식사 및 취사공간의 구성형태

조사지역에 있어서 식사 및 취사생활의 중심공간은 부엌이며, 이 공간은 근대화에 따른 도시화의 영향으로 생활적 특성과 물질적 측면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농촌 거주자의 주거요구 분석결과로부터, 현재의 부엌 형태를 유형화하면 다음의 <표 4>과 같다.

이와 같이 조사지역에서는 부엌의 형태를 재래형, 혼합형, 개량형, 입식형의 네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는 각각 I, II, III, IV 형으로 칭한다.

<표 3> 조사지역에 있어서 식사 및 취사공간에 대한 현재 생활상의 주거요구

공간요구 생활	공간용도	기거양식	공간변경	주 거 요 구	
				1차요구	2차요구
식사생활	• 병용의 공간(7가지의 생활행위와 병용)	• 좌 식	• 공간크기의 확대 • 의자·식탁의 도입	• 공간확대 요구 • 입식화 요구	식사과 취사생활의 병합된 공간(DK형)
취사생활	• 병용의 공간(가사작업의 생활행위와 병용)	• 입식(조리·취사) • 좌식(조리·취사이외)	• 취사설비 변경 • 바닥재료 변경 • 바닥높이 변경	• 입식화 요구 • 실내공간으로 평면화 요구	

〈표 4〉 조사지역에서의 부엌형태의 유형분류 기준

조사주택	유형	취사행위의 방식	취사설비	바닥바닥재료	바닥높이
3, 6, 7, 8번 주택	I 형 (재래형)	허리를 굽혀 작업하고 실외용 신발을 신고 생활	부뚜막	시멘트몰탈	고저차 있음
1, 4, 11, 12번 주택	II 형 (혼합형)	허리를 굽혀 작업하기도 하고 서서 일하기도 하는 혼합생활 실외용 신발을 신고 생활	부뚜막, 입식싱크대, 입식작업대 중의 2개 설비 이용	시멘트몰탈 타일, 흙	고저차 있음
2, 10, 13번 주택	III 형 (개량형)	서서 작업하고, 실외용 신발 신고 생활, 혹은 실내용 슬리퍼를 신고 생활	시멘트 몰탈의 입식 작업대, 혹은 현가구를 이용한 작업대	시멘트몰탈 비닐장판	고저차 있음 혹은 없음
5, 9번 주택	IV 형 (입식형)	서서 작업하고, 실내용 슬리퍼를 신고 생활	입식싱크대 입식작업대	비닐장판	고저차 없음

그런데 I 형에서 IV 형으로 갈수록 부엌은 점차 입식의 설비를 갖추고 입식의 생활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조사지역에 있어서 앞으로 부엌은 입식생활은 요구에 의해, 그리고 식사공간과의 병용화 요구에 의해, 그 평면형태가 냉장고, 식탁, 의자가 도입되는 DK 형으로 바뀌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V. 요약 및 제언

본 장에서는 식사 및 취사공간의 계획에 대한 연구의 결과를 종합정리하고, 그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요약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정리하면, 조사 지역의 농촌주택에 있어서 거주자는 식사 및 취사공간을 전통적인 재래의 좌식 생활에서 입식의 생활로, 그리고 분리된 식사와 취사는 서로 병합하여 실내공간의 평면화를 추구한다. 그리고 농촌주택에 있어서 취사생활공간(부엌)은 취사만이 아닌 가사작업공간으로 추구하고, 입식 뿐 아니라 좌식의 기거양식도 나타낸다. 따라서 농촌주택에 있어서 식사 및 취사공간의 계획시에는 이러한 거주자의 주거요구를 고려하여야 하겠다.

2. 제언

앞으로의 연구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 1) 본 연구는 주거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생활에 대한 것만을 조사 분석한 것이므로, 혼례, 제례, 명절, 생일 등과 같은 비일상적인 때의 생활에 대하여 조사 분석하는 심층적 연구가 계속되어야 하겠다.
- 2) 본 연구는 현재의 주생활 특성 및 그 구조를 파악한 것으로 과거의 생활에 대한 추적조사를 하여, 생활의 변화에 따른 공간구성의 변화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 3) 본 연구는 식사 및 취사공간으로 한정지어 그 공간구성에 대한 유형화를 한정지어 그 공간구성에 대한 유형화를 하였으나, 앞으로 총체적인 생활분석에 의한 주거공간 구성에 대한 유형화가 필요하다.

참고 문헌

- 1) 강영환 "한국 농촌 주거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 도시화 과정에 따른 주거형태 변화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87, 12, p. 46
- 2) 김경동, 이운주, 사회조사연구방법, 서울 : 박영사, 1968, p. 508~513
- 3) 한상복 외 2인, 문화인류학 개론,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6, p. 2
- 4) 김진일, "농촌 주택의 생활공간과 환경의 고

- 찰," 건축사, 1972, 2
- 5) 박경옥, "농촌 개량주택의 평면구성에 관한 연구 (I),"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87, 6
- 6) 박병길, "농가주택의 공간이용 실태와 취락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1987
- 7) 이만갑, 한국 농촌사회 연구, 서울: 다락원 1981
- 8) 이 원, "농촌주택의 주공간과 주생활 상호영향에 관한 연,"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7
- 9) 김광문의 3인, 건축계획, 서울: 세진사 1987